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4월 미 도매물가, 2022년 이래 가장 크게 상승...에너지 탓
- YahooFinance: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미 저소득층 타격

[미국 금융]
- WSJ: 월가, 장기적인 인플레 우려감
- Bloomberg: 모건 스탠리, “S&P 500, 기업 실적 좋아 지수 8,300으로 상향”

[미중 정상회담]
- Bloomberg: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서 의도하는 어젠다는?
- JP 보건 보고서: 미·중, 실리적 '휴전' 모드로

[중동 전쟁]
- Bloomberg: 트럼프의 전쟁 위협속에 미 이란 계속 대치 상태

[오일]
- WSJ: OPEC, 호르무즈 봉쇄로 오일 수요도 하향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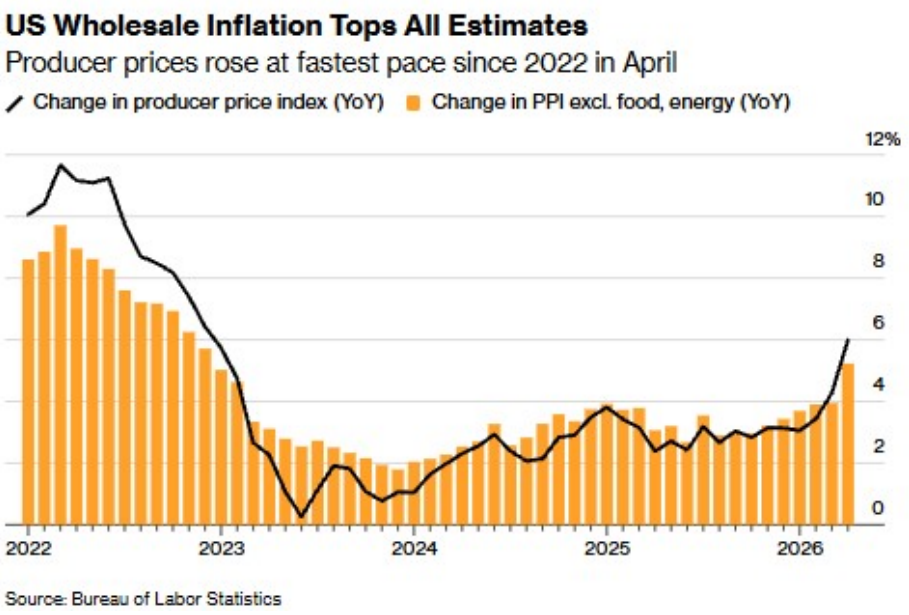
[주택]
- CNBC: 모기지 오름에도 불구 주택 대출 신청 증가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Producer Prices Rise Most Since 2022 on Energy Costs
4월 미 도매물가, 2022년 이래 가장 크게 상승...에너지 탓

- 미국의 4월 도매 물가가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의 여파로 2022년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.
- 연방 노동부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, 4월 생산자물가지수(PPI)는 전년 동월 대비 6% 급등했다.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 역시 2025년 4월 대비 5.2% 상승하며 높은 수치를 보였다.
- 이 같은 물가 지표는 전쟁 여파로 요동치는 국제 유가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연준 관리들의 입장에 더욱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.



기사

YahooFinance: $5-plus gas prices are starting to hammer low-income consumers: By the numbers
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미 저소득층 타격

- 높은 에너지 가격에 저소득층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입히기 시작하면서, 이란 분쟁의 여파를 견뎌온 미국 경제의 회복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.
- 씨티그룹은 오늘 수요일 보고서를 통해 “가솔린 가격 급등으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”고 경고했다.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가 상승세가 임금 및 고용 성장을 앞지르면서, 지난 4월 연 소득 5만 달러 미만 가구의 구매력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.
- 연 소득 5만~7만 달러 사이의 중산층 가구 또한 작년보다 필수재 지출에 매달 90달러 이상을 더 쓰고 있으며, 이 중 75달러 이상의 인상분이 최근 두 달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. 씨티 그룹은 "모든 소득 계층에서 소비력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강조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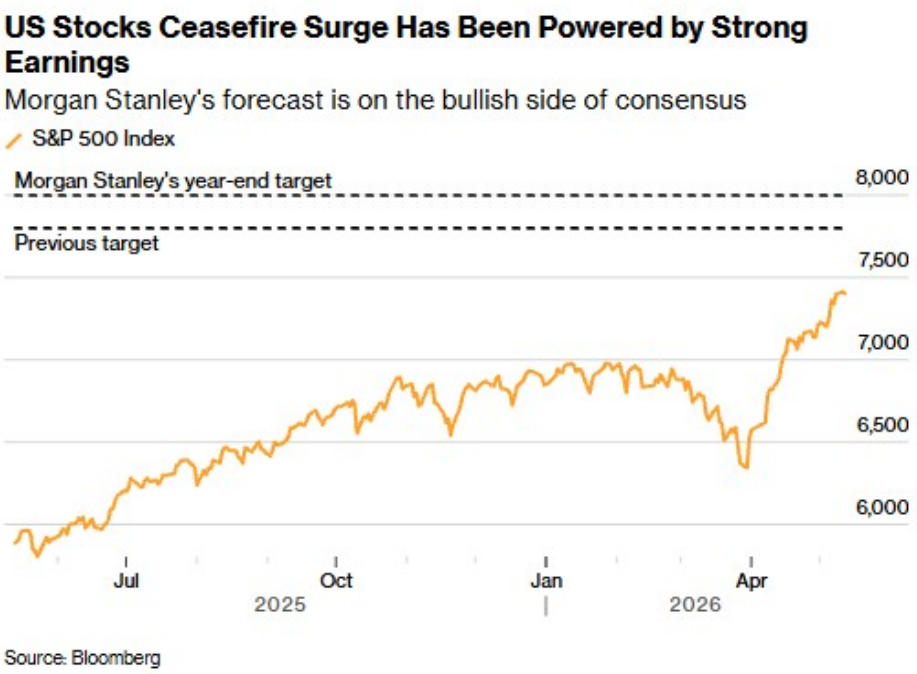
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Wall Street Is Getting More Anxious About Long-Term Inflation
월가, 장기적인 인플레 우려감

-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월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.
- 최근 미 주식 시장은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, 기저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꾸준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. 이는 시장 전반에 잠재적인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, 명목 국채 수익률과 물가연동국채(TIPS)의 금리 차이를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(BEI)은 최근 2022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. 이는 투자자들이 향후 5년간 연평균 인플레이션을 약

2.7% 수준으로 예상함을 보여준다. 10년물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이번 달 2.5%까지 상승하며 202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


기사

Bloomberg: Morgan Stanley Hikes S&P500 Target to 8,300 on Earnings Boom
모건 스탠리, "S&P 500, 기업 실적 좋아 지수 8,300으로 상향 조정"

- Morgan Stanley가 미국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, 향후 12개월 내 S&P 500 지수가 8,3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.
- 이 같은 낙관론은 강력한 어닝 시즌 성과 때문. 현재까지 S&P 500 기업들의 1분기 이익은 27%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, Morgan Stanley는 이를 바탕으로 주식 시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.
- 업종별로는 산업재, 금융, 경기 소비재 섹터를 유망하게 평가했다. 반면 유럽 증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과 수요 위축 리스크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전망을 유지했다.

기사

[미중 정상회담]

Bloomberg: What to Expect From the Trump-Xi Summit in Beijing
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에서 의도하는 어젠다는?

- 이란 전쟁 및 에너지 위기: 미국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초래한 이란 분쟁 종식 차원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, 특히 이란산 원유 최대 구매국인 중국의 경제적·외교적 지원 중단과 제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.
- 관세 및 무역 휴전: 작년 10월 합의된 무역 휴전의 연장을 논의하는 가운데,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무효화된 기존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수입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펜타닐 단속과 연계된 추가 과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.

- 구매 약속 및 투자: 미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Boeing 항공기 대규모 수주와 대두 및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를 압박하며, 이를 공식화하기 위한 '무역 및 투자 위원회' 설치를 추진 중이다.
- AI 기술 패권 경쟁: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측 AI 플랫폼 결과물을 복제해 저가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태에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, 양국 간 기술 접근 제한과 시장 개방 문제를 논의할 소통 채널 구축을 시도할 예정이다.

기사

JP 보고서: What to Watch for at the Trump-Xi Summit
미·중, 실리적 '휴전' 모드로

- 정상회담: "담판 대신 거래" - 미·중 정상회담의 목적은 '전략적 화해'가 아닌 '충돌 방지'다. 거창한 합의 대신 대두, 항공기, 에너지 등 특정 품목의 구매 확약을 담은 실무적 패키지 합의에 집중할 전망이다. 특히 희토류 등 민감 자원은 본 협상에서 제외해 갈등을 분리 관리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.
- 관세 정책: "법적 근거 상실" - 트럼프의 강력한 무기인 '글로벌 10% 보편관세'가 미국 무역법원(USCIT)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다. 대통령 권한은 의회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취지다. 이에 따라 향후 관세 확대 시 사법부의 고강도 조사가 불가피하며, 행정부의 독점적 권한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.
- 기술 전쟁: "생태계 싸움에서 밀리는 미국" - 무역 전쟁에 치중한 관세 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약화시켜 '기술적인 주도권 싸움'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. 기술 패권은 단일 혁신이 아닌 기업·연구소·동맹이 결합된 '에코시스템'에서 나오는데, 무분별한 무역 마찰이 이 협력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.
- 중국의 저력: "시간과 인재는 중국 편" - 단기 선거 주기에 영향을 받는 미국과 달리, 중국은 자동화와 자급자족을 위한 장기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다. 특히 바이오 등 첨단 분야 R&D 규모는 이미 미국을 추월했다.

기사

[중동 전쟁]

Bloomberg: US-Iran Standoff Lengthens as Trump Reiterates War Threats'
트럼프의 전쟁 위협속에 미 이란 계속 대치 상태

- 중국 방문을 시작한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과 '좋은 합의(good deal'를 맺지 않을 경우 파멸적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재차 높였다.
- 현재 양국 간 휴전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으나, 트럼프가 이를 "간신히 유지되는 상태"라고 표현할 만큼 상황은 위태로우며 이란 역시 미국의 요구에 강경히 저항하고 있다.
- 한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시장의 타격이 심화되는 가운데,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글로벌 원유 재고가 역대 최악의 속도로 급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세가 향후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.

기사

[오일]

WSJ: OPEC Cuts Oil Demand Forecast As Hormuz Shock Pushes Output Lower
OPEC, 호르무즈 봉쇄로 오일 수요도 하향 조정

- OPEC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산유량이 급감함에 따라 (경제 둔화로) 올해 글로벌 석유 수요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.
- 지난달 OPEC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천8백98만 배럴로 전월 대비 1백73만 배럴 줄었으며, 이는 해협 폐쇄 위기로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감축한 데 따른 결과다.
- 최근 UAE의 OPEC 탈퇴로 카르텔의 결속력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생산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장 조절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, OPEC은 올해 수요 성장 전망치를 기존 하루 1백38만 배럴에서 1백17만 배럴로 낮춰 잡았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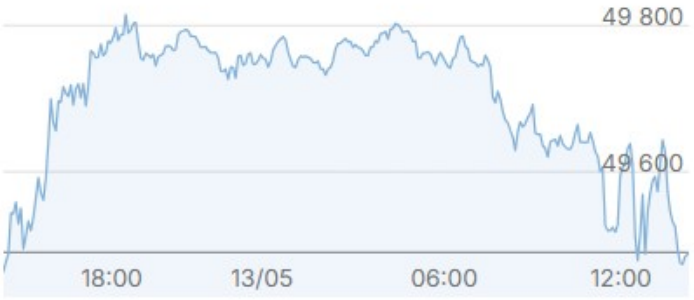
[주택]

CNBC: Mortgage rates move to highest level in 5 weeks, but homebuyers shake it off
모기지 오름에도 불구 주택 대출 신청 증가

- 30년 미 만기 고정 미 모기지 평균 금리가 6.46%로 상승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 목적의 대출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4% 증가했으며, 전년 동기 대비로도 7%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- 모기지은행협회(MBA) 관계자는 "예비 구매자들이 현재의 경제 상황과 금리 불확실성을 무시하고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분석했다.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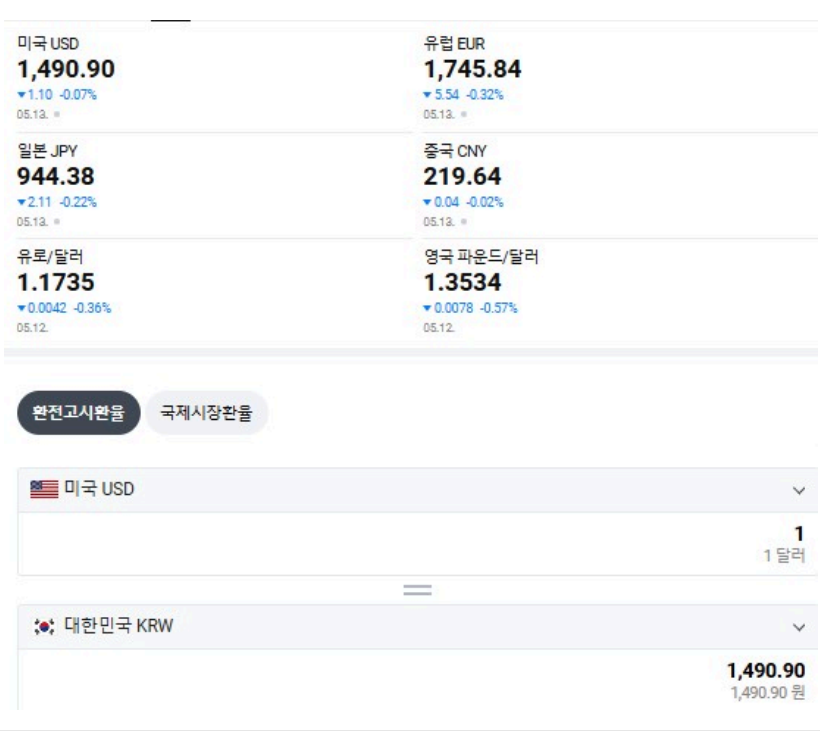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49,488.60	-272.0	-0.55%
US 500	7,414.70	+13.7	+0.18%
Dow Jones	49,490.35	-270.21	-0.54%
S&P 500	7,414.40	+13.44	+0.18%
Nasdaq	26,275.47	+187.27	+0.72%
S&P 500 VIX	18.01	+0.02	+0.11%
Dollar Index	98.405	+0.225	+0.23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4.75	-3/32	5.049	0.021
10-Year Note	4.375	-7/32	4.494	0.024
7-Year Note	4.125	-1/32	4.319	0.021
5-Year Note	3.875	-1/32	4.152	0.022
3-Year Note	3.875	-1/32	4.051	0.020
2-Year Note	3.75	0/32	4.015	0.017
1-Year Bill	0	0/32	3.801	0.016
6-Month Bill	0	0/32	3.739	0.000
3-Month Bill	0	0/32	3.699	0.005
1-Month Bill	0	0/32	3.665	0.000

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